

북아프리카의 로마도시들



강사: **이수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 중동 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슬람 문명과 이주 무슬림 역사를 주로 연구하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다.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슬람 문명이 가득 찬 곳, 유럽의 식민지배, 아랍 현대사의 여러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지역이 떠오를까? 과거 북아프리카의 역사는 우리가 현재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고대 카르타고에 있는 지역으로 로마와 경쟁자 관계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이 후,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을 차지하며, 로마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기도 하였다.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은 로마 제국 서부에서 이탈리아에 이러 두 번째로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할 정도였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북아프리카. 로마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북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찾아가 보려고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를 중심으로 로마 시대가 남긴 흔적을 만난다. 풍부한 상상력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을 넘어선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이다.